

글로벌 RWA 및 주식 토큰화 시장 성장 중

[디지털 자산] 양현경 2122-9213 beebie2724@imfnsec.com

Check Point

- 글로벌 RWA 시장 가상자산 약세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세 시현. RWA 시장 규모는 2025년 말 약 220억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약 320억달러로 약 45% 증가
- 주식 토큰화 시장 빠르게 성장 중, 주식 토큰화 시가총액은 19.5억달러로 25년말 6.8억달러 대비 187% 증가. 국내도 정형증권 토큰화 필요성 논의 부상 중

글로벌 RWA 시장 가상자산 약세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세 시현

글로벌 RWA(Real World Asset) 시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RWA 시장 규모는 2025년 말 약 220억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약 320억달러로 약 45% 증가했다. 현재 시장은 미국채 약 140억달러를 중심으로 원자재 47억달러, 크레딧 23억달러, 주식 19.5억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에는 미 국채와 사모신용 등 채권성 자산이 시장 성장을 주도했으나, 최근에는 주식과 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으로 토큰화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토큰화 주식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현재 토큰화 주식 시가총액은 19.5억달러로 2025년 말 6.8억달러 대비 187% 증가했다. 성장 배경에는 대형 거래소와 핀테크 플랫폼의 진입, 비미국 투자자의 미국 주식 접근 수요, 24/7 거래 및 소수점 투자 편의성, 레버리지 활용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도 정형증권 토큰화 필요성 논의 부상

이 같은 글로벌 RWA 시장의 변화는 국내 STO 시장의 방향성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기 국내 STO 시장은 미술품, 한우, 부동산 등 기존 전자증권 체계에서 발행하기 어려웠던 자산을 조각투자 상품으로 구조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 등 비정형 증권이 시장 논의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비정형 자산 중심의 시장 구조는 ①제한적인 수익성, ②낮은 상품 확장성, ③부족한 거래대금과 유동성, ④정형증권 중심으로 성장하는 글로벌 RWA 시장과의 괴리라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국내 STO 시장 역시 주식, 채권, MMF 등 정형증권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한국의 토큰증권 제도화는 2027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해 기술, 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 제도 설계를 진행 중이다. 다만 초기 제도화의 초점은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보다 부동산·미술품·음원·한우 등 조각투자형 비정형 증권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정형증권 토큰화는 초기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선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등 비정형증권 중심으로 규제 체계가 정비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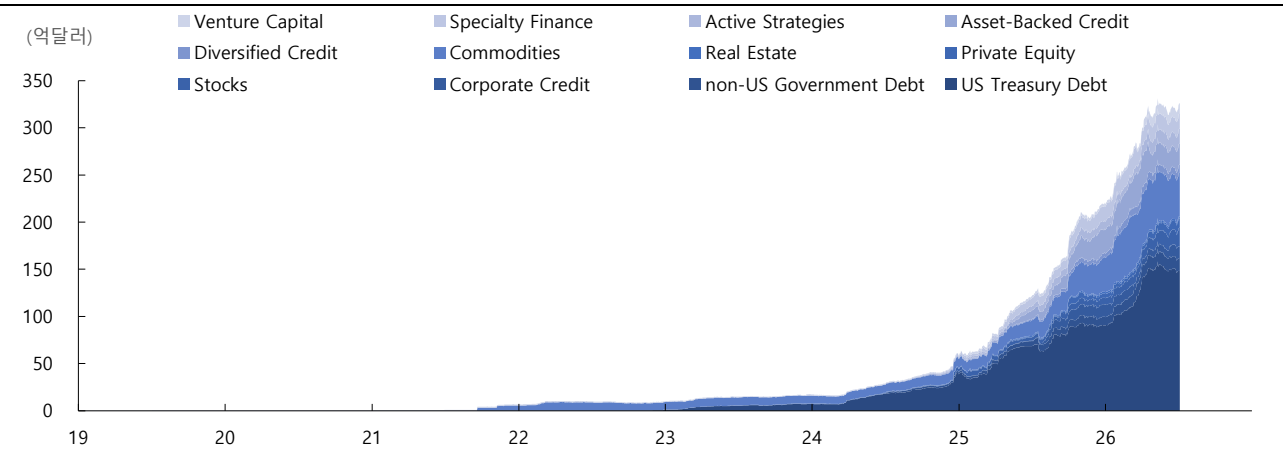
그럼에도 증권사들의 STO 사업 준비는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형 증권사들은 단순한 조각투자 상품 발행 채널 확보를 넘어 향후 정형증권 토큰화 시장까지 염두에 두고 자체 플랫폼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단기적으로는 비정형 증권 중심의 제도화에 대응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주식·채권·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의 온체인 발행·유통 인프라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형 금융자산의 토큰화가 확산되는 만큼, 국내 STO 플랫폼 경쟁 역시 향후 디지털 자본시장 인프라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대형 증권사와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인수 논의가 확대되는 점도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향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제한이 완화되고 STO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개화할 경우, 전통 증권업과 가상자산 산업 간 경계는 빠르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형 증권사들은 기존 주식·채권 중개를 넘어 토큰증권 매매, 가상자산 거래 및 수탁까지 포괄하는 종합 디지털 자산 플랫폼 구축을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 인프라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대형 증권사의 독자 플랫폼 구축 움직임에 대응해 코스콤은 공동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채권·MMF 등 정형증권 연동과 퍼블릭 체인 기반 멀티체인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국내 STO 시장은 폐쇄형 원장 기반의 비정형 조각투자 시장을 넘어 다양한 금융상품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인프라 경쟁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RWA 시장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 적합성과 함께 글로벌 유동성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구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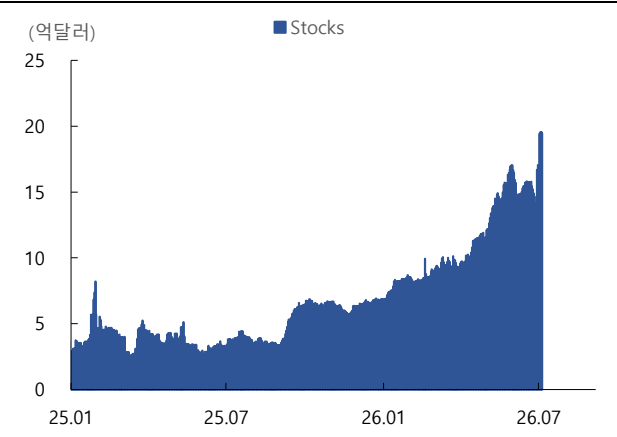
결국 국내 STO 시장의 핵심 경쟁 구도는 '어떤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할 것인가'에서 '누가 전통 금융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할 것인가'로 이동할 전망이다. 대형 증권사 입장에서는 국내주식, 해외주식, 채권, 토큰증권, 가상자산을 통합 거래·관리하는 '디지털 슈퍼앱' 구축이 중요한 전략 방향으로 부상할 수 있다. 글로벌 RWA 시장이 기존 금융자산의 온체인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향후 STO 제도 시행은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화에 그치지 않고 전통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경계를 재편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RWA 시장 규모는 2025년 말 약 220억달러에서 2026년 상반기 약 320억달러로 약 4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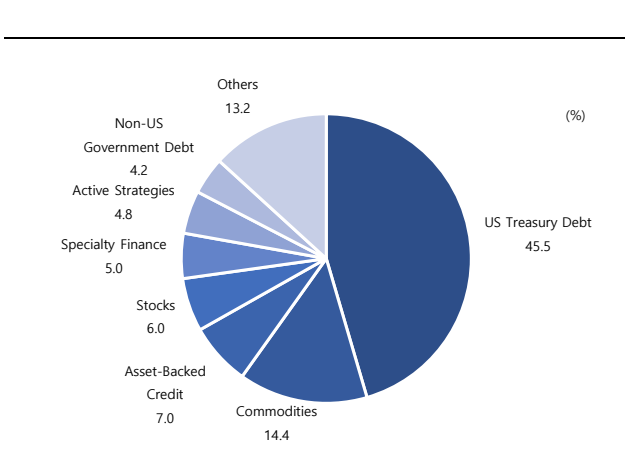
자료: RWA.XYZ, iM증권 리서치본부

현재 토큰화 주식의 시가총액은 19.5억달러로 25년말 6.8억달러 대비 187% 증가



자료: RWA.XYZ, iM증권 리서치본부

글로벌 RWA 시장은 정형증권(채권, 주식 등) 중심으로 성장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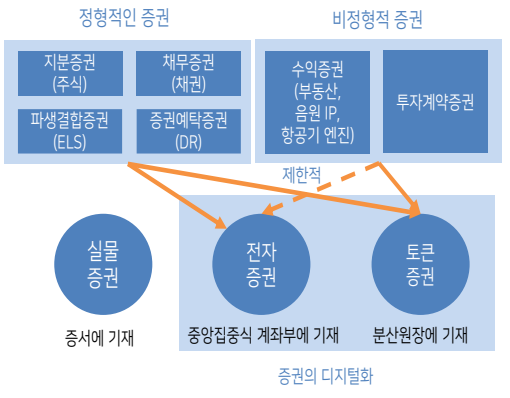
자료: RWA.XYZ, iM증권 리서치본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주식 토큰화 중 SK하이닉스 24시간 거래량(17억달러) 1위 기록. EWY(MSCI 한국 ETF) 8위, 삼성 13위 기록 중



자료: Coinglass, iM증권 리서치본부

현재 국내 STO 시장은 비정형증권의 토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정형증권 토큰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 부상 중

자료: Chosun Biz, iM증권 리서치본부

증권사와 관련 계열사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투자

증권사/계열사	거래소	지분율 및 주요 내용
미래에셋그룹 미래에셋컨설팅	코빗	경영권 인수, 지분 약 92% 확보
한국투자증권	코인원	전략적 지분 인수, 지분 20% 취득 계약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 SDS	업비트(두나무)	카카오 계열사 보유 물량 등 지분 약 4% 취득 결정
한화투자증권	업비트(두나무)	약 3.9% 추가 취득, 총 9.84%로 확대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업비트(두나무)	지분 6.55% 취득, 전통은행-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력 강화

자료: 언론사 종합, iM증권 리서치본부

코스콤 공동 플랫폼 연합

구분	코스콤 공동 플랫폼 연합
참여/구축	총 11개 증권사
금융사	키움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iM 증권, 유안타증권, DB 금융투자, IBK 투자증권, BNK 투자증권, 다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인프라	코스콤이 구축한 공동 분산원장 인프라 공유
증권 수용 범위	초기: 조각투자 위주의 비정형 증권 중심 현재: 대형사 이탈에 대응해 정형증권(채권, MMF 등) 연동 검토
블록체인	초기: 보안과 통제가 용이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 현재: 최근 글로벌 호환성을 위해 퍼블릭 체인 연계(멀티체인)로 전략 수정 중
최신 동향	IT 투자 비용 부담이 큰 중소형사 위주로 뭉쳤으나, 대형사 독자 행보로 인해 상위 증권사(키움, 메리츠 등) 이탈 및 양면 전략 가능성 제기

자료: 언론사 종합,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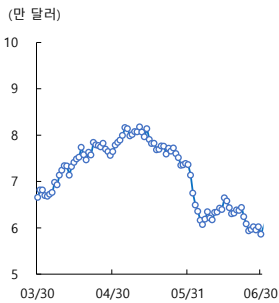
전주 Digital Asset Comment

미국 6월 비농업고용부문 신규 일자리가 5.7만 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11만 명)를 큰 폭으로 하회. 통화 긴축 우려로 한때 6만 달러 아래에서 거래되었던 비트코인은 고용지표 발표 이후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축소됨에 따라 반등. 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7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74.3%,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25.7%를 기록하며 금리 동결 가능성이 확대됨. 이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 및 미 국채 금리 하락으로 가상자산 섹터가 대거 청산되며, 현재 비트코인은 6만 4천 달러 대에서 거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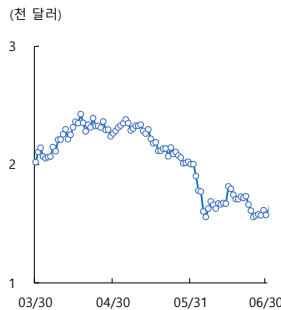
가상자산 News Flow

주요기사	언론사, 날짜
코스피 150배 레버리지 상공까지...해와는 '규제 사각지대'	디지털타임스 7.05
지분투자·신사업으로 활로 모색 [가상자산 거래소 재편③]	이투데이 7.06
정무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깊이 다뤄야"...하반기 입법 속도 기대감 [크립토브리핑]	파이낸셜 뉴스, 7.06
[산업분석] 서울·코인베이스, 오픈 USD 수익변수	Topstarnews 7.06
[코인시황] 비트코인, 6만2000달러 '안착'...ETF 자금 유입에도 투자심리 '신중'	뉴스웍스 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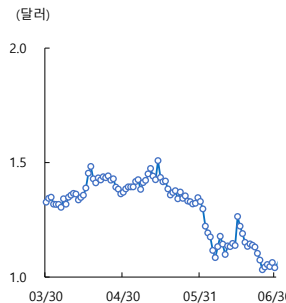
비트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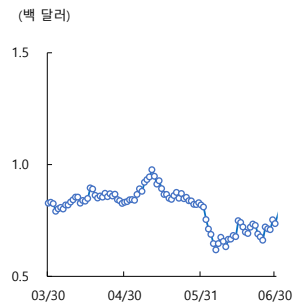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일주일간 수익률 상위 종목(시총 주요 종목 기준)

순위	종목명	1D (%)	1W (%)	1M (%)	1Y (%)	증가 (\$)	시총 (\$1M)
1	카르다노	-1.6	31.5	16.0	-67.0	0.2	7,063
2	비트코인 캐시	5.1	27.8	10.8	-50.0	244.5	4,897
3	제트캐시	-0.8	21.5	25.2	1066.2	463.3	7,758
4	테조스	5.1	19.3	1.0	-52.4	0.3	267
5	솔라나	-1.1	14.4	25.4	-44.8	81.0	47,339
6	커브 다오 토큰	1.3	13.2	18.0	-57.5	0.2	329
7	이더리움	-0.6	13.0	10.8	-28.7	1776.0	213,191
8	디센트랄랜드	1.3	11.4	4.9	-72.3	0.1	142
9	파일 코인	-1.1	10.6	7.8	-65.1	0.8	636
10	베이직어텐션토큰	6.3	10.5	6.8	-26.1	0.1	133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일주일간 수익률 하위 종목(시총 주요 종목 기준)

순위	종목명	1D (%)	1W (%)	1M (%)	1Y (%)	증가 (\$)	시총 (\$1M)
1	메이커	0.0	-5.2	-20.6	-36.3	1190.0	650
2	엔진 코인	0.0	-4.1	-12.2	-57.5	0.0	65
3	팬텀	0.0	-2.8	-24.7	-91.2	0.0	76
4	USDC	0.0	0.0	0.0	0.0	1.0	72,922
5	테더	0.0	0.1	-0.1	-0.1	1.0	184,022
6	이더리움 클래식	-2.0	1.4	3.8	-55.9	7.1	1,131
7	트론	0.6	1.5	1.6	444.5	0.3	31,215
8	코스모스	0.2	1.6	-3.6	-60.1	1.6	826
9	테라 클래식	-3.1	1.6	3.3	10.7	0.0	342
10	엑시 인피니티	-2.6	2.7	9.8	-51.8	1.0	169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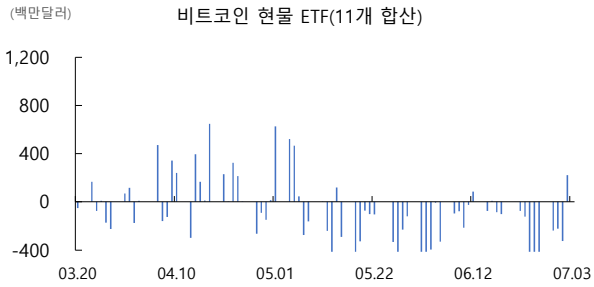
전주 일주일간 거래대금 상위 ETF(주요 종목 기준)

구분	티커	수익률(1W, %)	AUM(\$1B)	운용보수	거래대금(1W, \$1M)	배당수익률	연배당 횟수
비트코인 현물	IBIT	4.03	44.93	0.25%	6,693	-	-
비트코인 선물	BITO	3.47	14.00	0.95%	7,087	64.61%	월배당
이더리움 현물	ETHA	9.54	4.66	0.25%	1,566	-	-
비트코인 현물	FBTC	3.98	10.84	0.25%	825	-	-
비트코인 현물	GBTC	3.79	8.44	1.50%	270	-	-
비트코인 현물	BTC	3.82	3.37	0.15%	187	-	-
비트코인 현물	BITB	3.83	2.22	0.20%	209	-	-
이더리움 현물	ETH	9.32	1.43	0%	134	-	-
비트코인 현물	ARKB	3.72	2.03	0.21%	148	-	-
비트코인 현물	HODL	3.76	1.00	0%	95	-	-

자료: Bloomberg, ETF Check,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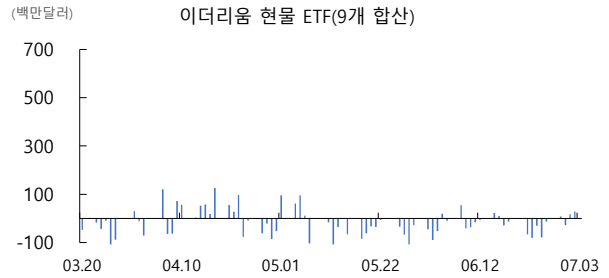
주) 높은 배당수익률은 비트코인 선물차익을 분배금으로 나눠주기 때문. 코인 상승장에서는 분배금이 많으나 하락장에서는 줄어드는 특징 존재

비트코인 ETF 펀드 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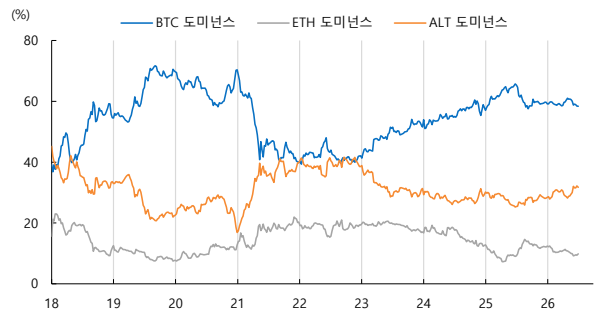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이더리움 ETF 펀드 플로우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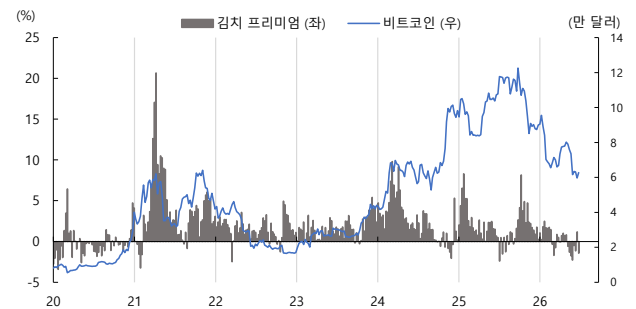
비트코인/이더리움/알트코인 도미넌스



자료: Trading View,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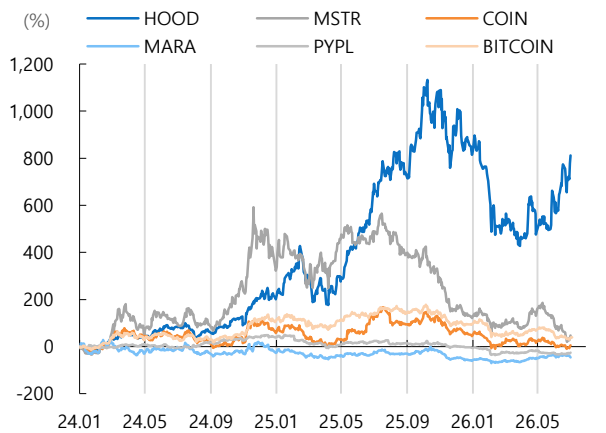
주) 도미넌스란 전체 시가총액에서 해당 자산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비트코인 가격과 김치 프리미엄



자료: Trading View, iM증권 리서치본부

가상화폐 관련 상장사 주가 수익률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코인 및 자산별 상관관계(3M)

구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테더	솔라나
S&P 500	-0.26	-0.50	-0.37	-0.74	-0.28
Nasdaq	-0.36	-0.60	-0.48	-0.79	-0.38
미국채 2Y	-0.62	-0.82	-0.73	-0.82	-0.62
미국채 10Y	-0.22	-0.47	-0.33	-0.61	-0.31
DXY	-0.87	-0.91	-0.90	-0.71	-0.75
WTI	0.76	0.72	0.76	0.50	0.58
금	0.85	0.93	0.93	0.77	0.80

자료: Bloomberg,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사: 양현경)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